



계절별

작업 전 안전점검 태풍 등 자연재난

작업 전 안전점검
당신의 생명을 지킵니다

2015 - 교육미디어 - 696

우리나라는 열대 이동성 저기압의 영향으로 태풍이 자주 지나간다. 태풍은 시지에 상관없이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지만 특히 9월에 많이 발생해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입히곤 한다. 한번 태풍이 휩쓸고 간 자리는 예전의 형태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된다. 강풍과 집중호우를 동반해 집과 도로 등을 마구잡이로 파괴하고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내는 것이 특징이다.

주요 유해 · 위험 요인으로는,

- 토사유실이나 지반의 약화로 인한 무너짐 등을 통한 인적 · 물적위험
- 태풍이 지나간 후 무너진 전주, 떨어진 전선 등에 의한 감전위험
- 침수 지반 등의 무너짐 위험
- 침수된 사업장 또는 건물 내의 전기설비, 수도관, 가스관 등에 의한 2차 사고 위험
- 각종 질병이나 전염병에 의한 건강장해 위험 등이 있다



✓ 안전점검 체크리스트

점검항목

- 태풍, 집중호우, 폭설 등 기상청의 『경보』 이상 기상특보 발령에 따른 작업중지 등 조치를 하고 있는가?
- 자연재난에 대한 매뉴얼 제정 및 주기적으로 훈련을 실시하는가?
- 자연재난에 대비한 『비상 연락망』 및 『비상 복구반』을 구성 · 운영하고 있는가?
- 태풍으로 인한 재난 위험장소(토사유실, 지반약화 등)가 있는지 사전 위험성평가 및 확인을 하였는가?
- 태풍으로 인한 폭우 시 침수의 위험(배수구 점검)은 없는가?
- 태풍으로 인한 침수 시 전기감전의 위험은 없는가?
- 태풍으로 인한 침수 시 오물의 유입으로 위생상 문제가 되는 곳은 없는가?
- 태풍으로 인한 침수대비 양수기 등 긴급복구 장비는 갖추어져 있는가?
- 태풍으로 인한 강풍 시 날아갈 위험이 있는 지붕, 간판 등은 없는가?
- 태풍으로 인한 정전대비 손전등, 양초 등 비상구호 용품이 구비되어 있는가?
-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 후에 대한 조치사항이 정해져 있는가?

점검결과

조치사항

※ 본 점검항목은 참고용으로 사업장 특성(아차사고, 위험성평가 등)에 맞도록 자체적인 점검항목을 추가하여 사용하세요.

태풍피해, 준비한 만큼 줄일 수 있다!

태풍이 오기 전에는

- 사업장 소재 지역에 따라 태풍의 복상 시기를 먼저 예상하고 강우량을 산정하는 등 안전점검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.
- TV나 라디오, 인터넷, 스마트폰 등으로 태풍의 진로와 도달시간을 알아둔다.
- 태풍에 대비하기 위해서 먼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한 대책을 협의한 후 기상청, 소방대, 병원, 지방자치단체, 인근현장과 비상연락망을 구축하도록 한다.
- 협의 내용은 각 부서에 정확히 전달하고 모든 사람이 관련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한다.



- 현장부지 내에 보수작업을 실시하는데 특히 하천·제방·골짜기 등 태풍에 취약한 장소에 대해서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 보수작업을 한다.
- 차량계건설기계가 운행되는 현장 도로에는 토사유실 등을 방지하기 위해 배수구를 점검하고 가스관, 전력구, 전화 케이블, 상·하수관 등 지하매설물을 꼼꼼히 확인한다.
- 태풍이 다가오면 작업을 중지하고 무너질 염려가 없는지 확인하고 보강시설 등 안전대책을 마련한다.
- 하천을 횡단하는 공사장에서는 상류지역의 강우량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수위상승에 대비해 차량통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.

태풍이 지나간 후에는

- 파손된 상하수도나 도로가 있다면 시·군·구청이나 읍·면·동사무소에 연락한다.
- 침수된 건물이나 공장 내에 가스가 차 있을 수 있으니 환기시킨 후 들어가고 전기, 가스, 수도시설은 함부로 손대지 말고 전문 업체에 연락해 안전성 확인 후 사용한다.
- 감전의 위험이 있으니 바닥에 떨어진 전선 근처에 가지 않는다.

강풍이 몰아치면

- 창문과 같은 유리창 근처는 유리가 깨지면 다칠 위험이 있으므로 피한다.
- 공사장은 바람에 날리거나 떨어질 건축자재 등이 많으므로 가까이 가지 않는다.
- 지붕 위나 바깥에서의 작업은 피해야 한다.
- 강풍이 지나간 후 땅바닥에 떨어진 전깃줄에 가까이 가거나 만지지 않아야 한다.



작업 전 **안전점검**
당신의 **생명**을 지킵니다

- 작업 전 안전점검의 습관화 / 실천문화 조성
- **사업주** 작업 전 안전점검 문화 조성 및 지원
 - **근로자** 수행 작업의 위험요인 파악, 보고 및 대응
 - **관리감독자** 해당 작업의 안전점검 및 개선대책 수립

기억하세요!
산업현장 4대 필수 안전수칙

1. 안전보건표지 부착(위험장소, 설비 등)
2. 안전보건교육 실시(위험요인, 안전작업방법 인지)
3. 안전작업절차 지키기(절차 제정, 준수)
4. 보호구 지급·착용(작업에 적합한 보호구)